독특한 지형 덕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한 곳에 볼 수 있는 당진 왜목마을의 아름다운 낙조 풍경을 드론으로 촬영했다.

사진제공 | 지쎈21

서해안 명품 낙조 바라보며 고즈넉한 가을여행

왜목마을 산 정상서 보는 낙조 일품 면천읍성 성벽 산책하며 가을 만끽 근현대 건물 어우러져 SNS명소 딱 버그내순례길서 천주교 역사여행도

얼마 전만 해도 후더분한 늦더위에 올 것 같지 않던 가을이 추석을 지나면서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. 계절 이 주는 정감 때문인지 가을여행은 다른 때보다는 조금 차분하고 호젓하게 떠나 고 싶어진다.

수도권에서 차로 1시간 반이면 도착 하는 충남 당진은 하루나 이틀의 짧은 일정으로 여행가기 좋은 곳이다. 서해의 일몰이 주는 장관부터 천주교 성지순례 의 경건함, 그리고 레트로 분위기의 아 담한 마을 투어까지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.

●왜목마을, 한 곳서 일출과 일몰을

서해안에는 하늘과 바다를 온통 발그 레 물들이는 멋진 낙조를 볼 수 있는 명 소들이 많다. 당진의 왜목마을도 그 중 하나다. 하지만 왜목마을은 다른 서해 낙조 명소들에 없는 매력을 하나 더 갖 고 있다.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 몰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. 마 을이 서해를 향해 북쪽으로 길게 뻗은 특이한 지형이라 동쪽과 서쪽 모두 바다 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.

해뜰 무렵에는 동쪽 해안으로 서해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고, 일몰 때는 서쪽 바다 너머 대난지섬과 소난지섬 사이 비 경도를 중심으로 해가 진다. 마을 뒤에 위치한 높이 70m의 석문산 정상에 오르 면 대호간척지부터 대난지섬. 비경도.





면천읍성 성벽에서 내려다 본 마을(위 사진),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있는 당진 솔뫼성지. 기도드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상이 있다. 당진 | 김재범 기자

소난지섬 등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좍 펼쳐진다. 일출과 일몰 모두 감상하기 좋은 명소다. 다만 해양경비초소 옆으로 난 탐방로를 이용해 가야하는데 길 상태 가 걷든, 차로 올라가든 조금 난이도가 있다.

●면천읍성, 성벽 따라 레트로 시간여행

고풍스런 성벽을 따라 걸으며 우거진 나무에서 무르익은 가을 분위기를 즐기 고 옛스런 근현대 건물에서 멋진 사진도 찍는 곳. 면천읍성은 당진에서 인스타그 래머블(SNS 사진찍기 좋은) 여행을 하 기 좋은 곳이다. 둘레 1558m의 성벽은 조선시대 쌓은 것으로 충남 기념물 제 91호다. 일제강점기 때 성벽 일부만 남 기고 사라졌지만 2007년 복원사업을 통 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.

성벽 안으로 한옥과 초가집, 일제강점 기 시절의 근대건물이 사이좋게 모여 있

길방:남

다. 100년 역사의 옛 우체국에 들어선 아담한 찻집을 비롯해 옥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전망이 보기 좋은 읍성 안 '그 미술관'. 옛 농협창고를 개조한 카 페, 진달래 잡화점 등 스마트폰 카메라 에 담고 싶은 예쁜 모습들이 곳곳에 있 다. 또한 이곳은 예전부터 콩이 유명해 곳곳에 콩국수 맛집들도 있다.

당진터미널에서 시내버스로 오기도 편해 여유롭게 성벽과 마을을 돌아보고 콩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마무리하는 당 일여행 코스로 적당하다.

●고즈넉하고 경건한 공간, 버그내 순례길

버그내순례길은 한국 천주교사를 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순교자들의 자취 가 어린 역사여행길이다.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의 강소형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.

'한국의 베들레헴'이라 불리는 솔뫼 성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안드레 아 김대건 신부가 출생한 곳으로 그의 생가와 동상, 기념관이 있다. 생가 앞에 는 2014년 이곳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 황이 의자에 앉아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 로 있다.

합덕면에 위치한 합덕성당은 1929년 건축된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.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성당은 언덕 아래 서 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.

버그내순례길의 마지막 여정인 신리 성지는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뤼 주교 가 거처했던 곳이다. 푸른 잔디가 깔린 너른 들판 위에 기념관과 미술관 등이 자리했는데 별다른 치장없이 소박한 느 낌의 건물과 어우러져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.

당진 | 김재범 기자 oldfield@donga.com

여행

스字≳동아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**15**



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'펀 루지' 패키지.

루지부터 농구까지…"운동하러 여행가요" 호텔들 MZ세대 스포츠케이션 상품 출시

파라다이스호텔 루지 패키지 10월 31일까지 운영

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운동과 레저 활동을 목적으 로 여행을 떠나는 '스포츠케이션(Sports+Vacation)'이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.

이러한 흐름에 맞춰 호텔업계들은 기존 호캉스에 다 양한 실내외 액티비티를 결합한 일명 '운캉스(운동+바 캉스)'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.

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야외 익스트림 레포 츠를 즐길 수 있는 '펀 루지' 패키지를 10월 31일까지 운 영한다.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스카이라인 루지 2회권을 제공한다. 루지 카트와 기장 바다를 바라보는 체어리프트 스카이라이드를 모두 체험할 수 있다.

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는 전문 선수들에게 농구 레슨 을 받는 '반얀트리 AAB 농구 아카데미'를 운영하고 있 다. 주 2회 그룹레슨이며 강습 외에 미니게임, 슛 챌린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.

서울신라호텔은 운동과 식단, 취미를 한데 모은 '어번 웰니스' 패키지를 출시했다. 호텔 피트니스센터에서의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, 호텔 셰프가 만든 채식요리를 룸 서비스로 제공하는 구성이다. 11월 14일까지 진행한다.

그랜드 제주 조선이 11월 30일까지 운영하는 '포 레스 트' 패키지는 2박 이상 투숙하면 싱잉볼 요가, 물 위에서 의 플로팅요가, 원 포인트 수영 레슨, 홈 필라테스, 스냅 사진 등 5가지 웰니스 프로그램 중 하나를 체험할 수 있 다. 객실에 짐볼체어를 비치해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 다. 김재범 기자

하이원리조트 장기투숙 상품 론칭

하이원리조트는 장기투숙 상품 '하이원愛 보름(한달)살 기' 패키지를 내놓았다. 장기투숙 상품은 일주일살기. 보름살기, 한달살기 등 투숙기간별로 선택할 수 있다. 그랜드호텔, 팰리스호텔, 마운틴 콘도 등 하이원리조트 의 모든 숙박시설에서 가능하다. 객실정비는 호텔은 2일 1회, 콘도는 3일 1회를 제공한다. 가격은 일주일살 기 44만4000원부터 3개월살기 599만 원까지 다양하다. 투숙 숙박시설에 따라 식음업장 할인률. 발렛 서비스. 워터파크 할인권 등 부대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.

편집 | 신하늬 기자 mythuki@donga.com

오늘의 날씨 24일(금) 인천 0/10 서울 0/20 춘천 0/30 26 26 강릉 60/80 대전 20/10 전주 20/20 15 15 26 27 23 광주 0/20 대구 20/20 부산 20/20 16 18 16 26 26 0/20 제주 10/20 창원 지역 20 17 최저 날씨 26 최고기온℃

人至为	농동아	The spo	rtsdonga		제3668호
발행인·편집 ¹	인 이인철	편집국장 연제:	호 사업총괄	김상수	광고국장 이승욱
편집부장 산업경제부장	안도영 양형모	스포츠부장 사진부장	정재우 고종철	엔터테인! 인쇄	먼트부장 이정연 동아일보시
광고문의	02-361-16	12 구독신청	1588-2020	FAX	02-361-1617
www.sportsdonga.com (우)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					
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-00131호〈일간〉 2008년 3월 24일 창간					
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. 구독료: 한달 12,000원, 1부 700원					
대표전화	02-361-16	10 제보·!	투고 02-361-	·1616 so	ol@donga.com

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24일 (금) 음력: 8월 18일 문의: (02) 812-1201, 도원학당 8 호랑이 호랑이 행운색:흰색 행운색:적색 행운색:적색 행운색:흰색 행운색:청색 행운색:검정 토끼 쥐 뱀

돛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 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 는 시기이다. 이제까지의 불운 을 만회하고 걱정이나 번민에 서 해방되는 때이다. 하지만 너 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 운도 놓치게 된다.

길방:서

길방:동

를 쓰라.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 는 수가 있다. 행운색:청색

ি ও 행운색:적색 길방:남

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. 나

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

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. 진행

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

길 수 있다. 잘 풀리지 않으며

교재비를 많이 쓰게 된다. 머리

길방:남

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 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 다. 명예, 문서적인 측면에 신 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 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 야 한다. 처음은 불안하다. 의 외의 횡재수도 있다.

원숭이

행운색:검정

길방:북

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

길방:북

시시한 일들로 인해 훼방을 받 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. 자금난 에 봉착한다.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시련의 때야말로 인 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. 서 두르면 곤란만 야기 시킨다. 상 대의 입장을 살펴보아라. 새로 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.

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 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. 물질 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 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.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.

% 개

길방:서

행운색:적색

길방:남

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. 처음은 곤란하지 만 우물물이 밑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 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. 지출 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 출은 기다리면 된다. 소송사건 은 오래 가겠다.

생물 돼지



길방:중앙

행운색:노랑

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

옛날 나라에서 제향을 올려야 승진이 있는 날이다.

길방:동

행운색:흰색

길방:서

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 야 할 시기이다. 경솔히 나아가 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친다. 정지해야 할 때는 정 지해야 한다. 태연하고 여유 있 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 이 중요하다.

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. 이성을 만 나면 길한 날이다.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 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.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 드시 성공할 것이다. 애정 운이 최고인 날이다.

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뛰어난 재능, 아름 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 욱 빛나는 것이다. 매사에 쓸데 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, 지 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한다.

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 까 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 다.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,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. 두 곳의 사 업장이면 한 곳으로 합치면 좋 겠다.

날이다. 벅찬 일로 고역을 치른 다.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. 격류를 견디어 내려면 굳 센 용맹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 다. 이때에는 중요한 문제에만 치중하여 일의 부담을 더는 것 이 선결과제이다.

했던 날이다. 즉, 현재의 번영 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 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경계하는 의미이다. 사업인 에게는 이익이, 직장인에게는